

# JTC (950170)

기업 탐방노트 | 미디어/엔터/통신

## NR

목표주가	NR
현재주가	7,030 원
시가총액	2,461 억원
KOSDAQ(01/28)	664.7 pt

# FY3Q Review: 잘 싸웠지만, 역부족

Analyst 김현용 \_ 02 3779 8955 \_ hyunyong.kim@ebestsec.co.kr

### 컨센서스 대비

상회	부합	하회
	●	

### Stock Data

90 일 일평균거래대금	11.24 억원
외국인 지분율	10.1%
절대수익률 (YTD)	-18.2%
상대수익률(YTD)	-17.4%
배당수익률(19E)	0.0%

### 재무데이터 (IFRS 연결기준)

(십억원)	2016	2017	2018	2019E
매출액	533	532	519	625
영업이익	27	31	23	41
순이익	15	25	8	25
ROE (%)	12.4	18.5	4.1	11.7
PER (x)	n/a	n/a	28.8	9.4
PBR (x)	n/a	n/a	1.3	0.9

자료: JTC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### Stock Price



## 방일외국인수 성장 정체가 투영되며 아쉬운 3Q 실적 기록

- 동사 FY3Q(9~11월) 실적은 매출액 118억엔(YoY -1.9%), 영업이익 2.5억엔(YoY -44.5%)기록. 한화로는 매출액 1,287억원(YoY +7.2%), 영업이익 27억원(YoY -39.4%)으로 매출은 엔화 강세로 선방했지만 보고통화 기준 2% 하락했고, 방일 한국인 급감에 따른 전방 환경 악화가 수익성에 투영되며 큰 폭의 감익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
- 동기간 방일외국인수는 721만명(YoY -0.6%)으로 한국인은 YoY -63.2% 급감한 60만명, 중국인은 YoY +15.9% 증가한 230만명을 기록. 방일중국인 두자리수 증가에도 매출비중 25% 수준의 방일한국인이 63% 급감하며 동사 매출은 마켓퍼폼 이하를 기록

## 12월 방일외국인수 4% 감소 출발 & 우한폐렴까지 겹쳐 4Q도 어렵다

- 12월에도 방일외국인수는 253만명(YoY -4.0%)으로 부진을 이어감. 한국인은 25만명(YoY -63.6%)으로 최악의 3분기 월20만명 수준은 벗어났으나 계절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다는 판단. 중국인은 YoY +18.5% 증가한 71만명으로 호조세 지속된 점은 긍정적
- 그러나 1월말 우한폐렴 확산 이슈로 2월은 방일중국인도 감소가 불가피. 방일한국인 반등은 빨라야 2분기(총선과 올림픽 사이)를 예상하기에 동사 FY4Q19(12~2월) 실적도 다소 부진이 예상됨

## 천억원에 육박하는 현금과 PER 12배는 매력적

- FY3Q말 현재 현금 950억원(순현금 450억원) 보유 중이며 전일 급락으로 PER는 12배 미만으로 하락한 상태
- 다만, 일본에서 영업하는 면세점(인바운드) 사업자로 상당 기간 우한폐렴 이슈를 빚겨가긴 어려울 전망. 단기로는 관망세가 유효할 전망

JTC 목표주가 추이		투자 의견 변동내역											
		<b>일시</b> 2020.01.29 2020.01.29	<b>투자 의견</b> 변경 NR	<b>목표 가격</b> 김현웅 NR	과리율(%)			<b>일시</b>  	<b>투자 의견</b>  	<b>목표 가격</b>  	과리율(%)		
					최고 대비	최저 대비	평균 대비				최고 대비	최저 대비	평균 대비

**Compliance Notice**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김현웅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\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**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**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 의견 비율	비고
<b>Sector</b>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<b>Company</b>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 <b>합계</b>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기대 -15% 이하 기대	95.0% 5.0%	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±20%에서 ±15%로 변경
				<b>100.0%</b>	투자 의견 비율은 2019. 1. 1 ~ 2019. 12.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, 분기별 갱신)